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머칠 사이 남도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을 맞기 위해 공원 산책을 하였다. 하얀 눈 위에 작년 겨울의 삶이 오듯이 눈 속에 숨어 있다. 겨울은 나무의 속살을 보여주어 좋다. 하얗게 숨처럼 덮여 있는 눈을 살짝 거두어 내고 싶었다.

눈과 실컷 만나고 돌아온 날, 인형달의 그림책 '눈 아이'를 만났다. 그림책 따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겨울의 한 가운데서 무엇을 만났나요?' 물었다. 그림책 표지를 본 순간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올겨울 필자는 두가지의 스토리를 기억한다. 첫 번째 스토리는 조카, 딸 아이와 함께 한 서울여행이다. 서울여행은 요즘 문화 트렌드 용어를 빌리면 '공간력'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났다. MZ세대와의 여행은 서울이라는 장소를 선택해야만 했다.

아이들과 함께 간 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백화점이었다. 더

현대백화점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100평이 넘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빨간 곰돌이가 트리 위에 매달려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그 다음 찾은 곳은 경동시장의 스타벅스였다.

경동시장은 1960년대 지어졌던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는데 청춘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시장 사람들도 나이든 시장에 젊은 청춘들이 많이 보여 활기찬 모습이 좋다고 한다. 경동시장 스타벅스는 장소가 넓어 영상 이미지로 손님에게 알린다. 넓은 공간 스크린에 차를 주문한 사람의 닉네임이 뜨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롯데월드 매직캐슬의 미디어 파사드다. 20분 정도 매직월드 세상을 만났는데 순간 매직의 세계로 빠지는 듯한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하루 동안 서울에서 만난 장소는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공간력'을 세세히 마켓팅 장소다.

코로나 펜데믹이 벗어나는 시점에 많은 사람이 찾은 공간을 활용하여 기업의 영업전략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실은 필자의 서울여행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작품을 보기 위해서였다.

온라인 예약이 늦어 월요일 개관에 맞추어 서울행을 하였다. 그러나 현장 판매는 오전 10시에 마무리되었다. 새벽바람을 이고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정도에는 원하는 표를 얻을 수 없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의 역사 전시관을 보고 박물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가장 멀리 와서 먹은 점심은 생각보다 맛이 있었다. 아쳐 구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마주 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기억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만난 기억이다. 차가운 바람을 만나서 웅크리고 있던 마음을 활짝 펴는 것이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다. 열을 열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한 것처럼 추위에는 찬 것으로 대응한다. 추운 겨울에는 겨울 강가에서 추운 바람과 만나보는 것도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찬 바람 속에서 자신을 맡기며 마음가짐을 해본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강은 섬진강이다. 겨울 강은 거세게 몰아붙이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새해의 계획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

휘날아치는 물줄기에 마음을 내려놓고 차가운 바람에 맞서다 보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겨울은 서서히 우리 곁에서 맴돌다 봄으로 가고 있다. 그림책 '눈아이'에는 이러한 대사가 있다. 봄이 오자 눈사람이 녹고 있다. 아이는 눈아이를 안아준다. 그때 눈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이가 묻는다. "왜 울어!" 눈아이가 답한다. "따뜻해서" 눈사람도 아이도 둘

다 아이다. 그러나 존재의 다름을 알게 되면서 계절이 바뀌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안다. 존재의 다름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 아름다운 이별이 또 다음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광화문 교보문고 글 판 진은영 시인의 '어울린다' 시의 한 부분이다.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 그렇다. 혼자 걷는 것 보다는 손을 잡고 찬란한 봄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자.

겨울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나요? 눈아이와 이별을 고하며 이제는 우리는 봄으로의 삶의 여행을 시작해야 할 때다.

안녕달 작가의 '눈아이' 그림책을 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건네는 다정한 겨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당신의 파스한 시선으로 만나는 세상은 우리에게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선사해 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전기화재 예방 겨울철 일상습관



김태현 /담양소방서 옥과센터

올철에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전기화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전기안전공사 등 당국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등 전기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음번 집계에선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발화 원인별 분석에서는 미확인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2415건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화재가 1754건으로 21.3%를, 트래킹에 의한 단락이 1119건으로 13.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체크리스트 작성, 누전차단기 설치, 과도한 전기 사용 자제, 난방용품 사용할 때 시간 정하기 등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소방서에서 트래킹 클리너 대여를 통한 배전반, 분전반, 콘센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방서는 바빠진다. 화재취급이 늘어나고, 난방 및 온열기구의 사용량 또한 증가함으로써 평균적으로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최근 10년간 매년 약 8000건으로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1월, 4월, 2월, 12월 순으로겨

트 내 먼지 제거 및 흡입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추운 겨울철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습관처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인관련시설, 화재예방 관심음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대표적 사례다. 숨진 사람들은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다수였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치료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피난하도록 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들은 연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었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노인요양 시설도 늘고 있다.

다수의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일반대상물과 다르다.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물에 비해 피난약자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화재진압 훈련만큼이나 대상물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자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비상구를 항상 개방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할 뿐

화재로 인한 사망 피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이 훨씬 높는데 그중 요양원 등 노인시설은 화재피해가 정말 클 수 있다.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가 많고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시 상황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져 화재 예방 및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아니라 각 층·구역별 관리자들이 소화가, 육내소화전 및 피난시설 등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 피난 시 행동요령을 숙달토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구역별 간호사 1~2명의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야간 병동 같은 경우 화재 발생 시 근무자가 각 병실을 돌며 모든 환자를 대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평군 연령이 높아지면서, 피난 약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전에 화재를 사전에 알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한자성어처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올겨울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